

점령아리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 특보2호

전화번호 : 010-6201-2383

블로그 : blog.jinbo.net/occupy77

이메일 : occupy77@jinbo.net

후원계좌 : 국민 812702-04-215225(조영태)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 세상 건설!

희망노동자 선언운동 및 신문광고를 위한 1,000원 모금운동을 함께 합시다!



지난 12월 23~24일 "쌍용자동차 1차 점령의 날" 투쟁에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의 노동자, 학생, (춧불)시민, 직접행동에 함께 하는 개인 활동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노동자 참가단'은 이 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전국의 노동자들에게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투쟁에 함께 할 것을 호소하는 전국 순회 투쟁을 힘 있게 펼쳤으며 대략 150여 명 정도가 '노동자 참가단'의 이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노동자 참가단'은 전체 투쟁에 결합한 후, 약속한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1차 집담회에서 대중적, 민주적 토론을 거쳐 쌍차 투쟁을 지속적으로 확산,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1월 13~14일 2차 전국 집중 투쟁을 앞두고, '노동자 참가단'은 전국의 더 많은 노동자가 이 투쟁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언운동 및 신문광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전국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제안키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1,000원 모금운동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과 직접행동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형태로 폭발될 것입니다. 지난 2008년 시작된 경제 위기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본격적으로 세계공황으로 번져 나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세계공황이 겨우 초입 단계를 통과하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미 자본주의 체제 자체에 대한 대중의 반발과 분노가 분출되는 마당에 공황이 본격화 된다면 자본과 노동 사이의 투쟁은 서로 물러설 수 없는, 그야말로 서로가 사활을 걸고 한 판 계급투쟁을 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세계공황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차라리 지금까지가 오히려 평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배계급은 이미 이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온갖 '말잔치'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토록 경제 성장과 노동유연화를 강조하던 그들이 어느 새 '복

지', '물가안정' 등을 들고 나오고 있으며, '정리해고,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일 뿐입니다. 지금보다 상황이 덜 나쁜 조건에서도 하지 못했는데 위기가 훨씬 더 심화되는 속에서 그것들을 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토록 명확하거늘, '진보'를 말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야권연대', '민주대연합', '선거심판론' 따위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은 자들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또 다시 노동자계급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자본가정당과 단절하라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자본가정당과 한 몸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회진출'에만 매달리는 세력도 있습니다. 공식 노조 지도부들도 그들과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함께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8.6합의가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6합의를 말하고 있는 일부 세력은, 그나마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제 노동자계급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선언운동, 모금운동'은 그를 위한 출발입니다. '선언운동, 모금운동' 자체가 지배계급과 진보정당 및 노조 관료들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체가 반자본주의 투쟁에는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투쟁을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 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도록 진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노동자 참가단'은 그런 확신과 전망을 갖고, 노동자계급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아래에서 이 운동을 펼치는 것입니다. 동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동을 바랍니다.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 2차 포위의 날(1월 13일)에 앞서
 <쌍용차투쟁승리!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 세상 건설을 위한 >

희망노동자 선언

쌍용자동차 노동자는 전원 복직되어야 합니다.

“해고=살인”이라는 말이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쌍용차 사태는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살기위해서는 단 한명의 해고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희망버스가 정리해고 없는 세상을 향한 노동자들의 마음을 모아 한진중공업에서 정리해고를 막아낸 것처럼, 2년 전 정리해고가 진행되어버린 쌍용차에서 정리해고를 무효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리해고’란 단어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012년, 쌍용차 투쟁의 승리와 모든 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언합니다.

쌍용차 정리해고자· 정직자·휴직자·비정규직 전원 원직 복직!

쌍용차 정리해고 발표 직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무려 19명의 쌍용차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쌍용차만의 문제입니까? 거대기업 KT에서도 지난 2년간 20명 가까운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의문사·돌연사·사고사로 죽어갔습니다. 얼마 전에는 철로보수를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5명이 기차에 치여 한꺼번에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12월 30일에는 세진중공업 하청노동자 4명이 폭발/화재사고로 숨졌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7명씩 산재사고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차·KT·코레일 등 자본가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일이 없습니다. 명백한 살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떤 자본가도 처벌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본 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한 첫걸음으로 2년 전 쌍용차에서 벌어졌던 구조조정의 희생자였던 정리해고자·정직자·휴직자·비정규직 전원의 원직 복직을 요구합니다. 쌍용차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의 살인행위를 차단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살인적 노동강도와 비인간적 노동통제를 분쇄!

2년 전, 쌍용차에서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의

로 무려 3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생산량이 2004~2005년 수준을 거의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생산직 노동자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생산량은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쥐어짜면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빠센 노동강도로 골병이 들고 있지만 회사의 강화된 통제와 협박으로 산재 신청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휴가 사용은 물론이고 잔업·특근을 빼는 것도 회사 눈치를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현장통제는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폐쇄 공격이 벌어졌던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등에서도 공장 복귀한 노동자들에게 정신교육과 풀뿌기를 시키고, 심지어 “나는 개다”를 복창하게 만드는 파렴치한 짓도 벌어졌습니다. 바른 말 잘하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쫓겨나자 자본은 현장을 ‘강제노동 수용소’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노동강도 강화를 저지하고 비인간적 현장통제를 박살내기 위해서라도 쌍용차 투쟁을 반드시 승리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철폐!

쌍용차 77일 점거파업은 원·하청 공동투쟁이었습니다. ‘정리해고 분쇄’와 함께 ‘분사화 저지, 비정규직 총고용 보장’이라는 3대 슬로건이 점거파업의 정신이었습니다. 지금도 지역 한나라당·민주당 국회의원실 앞에서 비정규지회 동지들의 천막 농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쌍용차 현장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희망퇴직 후 분사화되어 하청 신세로 전락한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1차 하청만이 아니라 2차, 3차 하청까지 합하면 더 많습니다. 현대차에서, GM대우차에서, 사내하청이 늘어난 것은 정리해고로 쫓겨난 정규직 일자리를 대체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확대는 동전의 양면이기에 함께 단결해서 투쟁해야 합니다.

노동강도 완화, 생활임금 쟁취! ‘노동자살리는 주간연속 2교대’ 쟁취!

최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쌍용차 평택공장 조립3팀과 창원의 엔진공장에서 근로기준법조차 어기며 장시간노동을 강요해 왔음이 드러났습니다. 노동강도를 낮추고 노동시간을 줄인다면 정리해고자·휴직자·정직자·비정규직 노동자들 모두가 현장에 돌아갈 길이 열립니다.

아울러 야간노동, 잔업·특근 등 장시간노동을 강요해 왔던 저임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수준인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생활임금 쟁취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산업에서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며 생활임금을 보장받는 ‘노동자 살리는 주간연속 2교대’를 쟁취하는 것은, 전체 산업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입니다.

쌍용차 투쟁! 모두가 함께 합시다!

2년이 넘는 시간동안 쌍용차 동지들은 고통 속에서도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쌍용차 투쟁을 함께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 노동자투쟁의 포문을 열어 제깁시다. 희망텐트를 하나씩 채워갑시다. 당장 ‘쌍용자동차 희망텐트촌’으로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지역, 현장에서 쌍용차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한다는 마음을 모아 냅시다. ‘희망노동자선언’을 시작으로 비정규직 없는 세상, 정리해고 없는 세상, 노동해방 세상을 위해 전진합시다.

1월 5일부터,

희망노동자 선언운동은
전국의 현장에서 동시에 시작합니다.

- 철도, 도시철도, 서울지하철 등 궤도 사업장
- 사회보험노조, 전교조, 대전일반노조 사업장
- GM대우, GM 창원, 기아자동차 화성, 소하리, 광주 공장, 현대자동차 울산, 아산, 전주공장
- 공무원, 건설, 유통노동자들과 함께 합니다.

울산, 경기, 충남, 광진의 노동자참가단 동지들이 지역의 사업장을 돌며, ‘희망노동자 선언’을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에서, 현장에서부터 자발적인 ‘희망노동자선언’과 ‘신문광고를 위한 모금운동’을 부탁드립니다.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과 함께 합시다!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가?

12월 7일부터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망텐트가 설치되었다. 19명의 사망자가 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문제를 이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희망텐트가 시작하게 되었다.

정리해고와 죽음의 문제는 단지 쌍용차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 여름을 뜨겁게 달군 한진중공업 투쟁과 희망버스 운동에서 드러나듯이,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투쟁은 이미 모든 노동자의 과제로 설정되었다.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은 우리 노동자 모두의 투쟁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과 사회적 연대로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열어젖힌 장을 우리 노동자들의 자발적 직접 참여로 채워야 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은 시작하게 되었다.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의 목표

○ 쌍용차 희망텐트 투쟁 연대, 엄호.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은 쌍용차 동지들이 열어놓은 정리해고 투쟁에 함께 하고자 한다. 희망텐트촌 투쟁에 누구보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전선을 확대, 강화시키겠다는 각오로 노동자 참가단을 만들었다.

○ 노동자투쟁전선의 확대.

쌍용차를 시작으로 투쟁하는 모든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정리해고가 쌍용차에 그치지 않듯이, 쌍용차 투쟁은 전국 노동자의 투쟁과 맞물려 있다. 그렇기에 착취와 억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전국 노동자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며, 노동운동에 활력을 제공하고 계급투쟁 전선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한다.

○ 경제위기의 주범, 자본주의에 맞선 투쟁.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은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국면에서 전 세계 노동자의 투쟁 흐름에 발맞추어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투쟁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본가 정당들이 복지공약을 남발하며 노동자를 현혹시키고 있는 현실에서 1% 자본에 맞선 99% 노동자 민중의 대안



을 투쟁으로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 노동자 스스로의 행동 조직.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은 단순히 노동조합의 지침을 수행하는 수준의 운동, 박제화된 공식 노조체계, 상층기구 중심의 운동을 넘어, 대중 스스로의 자발적 행동을 추동하고 조직하는 활동을 목표로 한다.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 대중들의 민주적인 집단 토론으로 결정하고 실천하는 직접행동을 지향한다.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이 해 온 지금까지의 활동

○ 노동자 참가단 현장순회

‘쌍용차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은 지난 12월 18일 출정식을 시작으로 23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쌍용차 희망텐트촌 투쟁을 선전하고 23일 대회 참여를 호소하였다. 노동자 참가단 현장 순회 활동으로 본 노동자의 삶과 투쟁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다를 바 없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자본의 거센 공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맞서 생존권을 쟁취하고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 오늘도 처절하게 전개되고 있다.

○ 노동자 집담회

노동자 참가단은 23일 밤 ‘와락 크리스마스’ 부문 행사로 <희망텐트촌 노동자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였다. 100여명의 동지들이 참여하여 쌍용차 투쟁과 자신들 투쟁에 대해 허심탄회한 목소리를 내었다. 그리고 2012년 정세를 전망하며 노동자 참가단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모색하였다. 집담회에서 토론을 통해 23일, 노동자 참가단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로 결정하였다.

- 1) 노동자 참가단은 1월 13~14일 <희망텐트촌 2차 포위의 날>에 적극 참여한다.
- 2) 노동자 참가단은 2차 포위의 날 조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3) 참가단의 명칭은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으로 한다.

○ 희망노동자 선언운동

노동자 참가단의 취지를 더욱 확산시키고, 많은 노동자들이 쌍용차 투쟁에 대해서 연대와 참여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쌍용차동차 투쟁 승리!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해방 세상 건설! 희망노동자 선언운동”을 1월 5일부터 진행한다. 선언운동을 통해 전국의 노동자들이 쌍용차 투쟁의 일 주체로서 나서는 계기를 만들고, 선언운동의 결과를 신문광고에 실어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한다.

노동자 참가단에 함께 합시다!

23일 1차 포위의 날 조직 과정에서 노동자 참가단이 급하게 기획, 결성, 운영되느라 폭넓게 제안, 조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제, 더욱 알찬 실천을 통해 ‘2차 포위의 날’에는 더욱더 많은 동지들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아울러 1월 13일에도 1차 포위의 날처럼 노동자 스스로 토론하여 향후의 실천의지를 모아가는 집담회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

동지들, 1월 13일, 희망텐트 2차 포위의 날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희망텐트 노동자 참가단>과 함께 하자!

노동자 참가단 2차 전체 집담회



- 일시: 01월 13일 (시간미정)
- 장소: 쌍용차 평택공장 희망텐트촌 근처
- 참가 대상: 희망텐트촌 노동자참가자 및 누구나
- 주제: 노동자참가단의 투쟁 방향과 계획

참가문의

블로그 : blog.jinbo.net/occupy77
전화번호 : 010-6201-2383

쌍용차 희망텐트촌 투쟁, 다가올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도화선!

작년 12월 7일, 쌍용차 노동자들이 더 이상의 죽음을 막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해 희망텐트촌 투쟁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12월 23일~24일, <희망텐트촌 1차 포위의 날, 와락 크리스마스>에서 이 투쟁에 대한 대중적 공감대가 확인되었다. 1,000여명의 노동자들이 쌍용차 희망텐트촌 투쟁에 함께 하여 정리해고를 철폐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모든 노동자의 희망을 위한 투쟁

이 투쟁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니다. 이미 정리해고는 모든 노동자의 고용과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제다. 지금도 대우자관, 포레시아, 파카한일유압, 풍산마이크로텍 등 전국의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철폐와 복직을 위해 투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텐트촌 투쟁은 정리해고 철폐 투쟁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다.

어디 이 뿐인가? 이른바 '산 자'들의 죽음으로 쌍용차 현장이 자본의 천국, 노동의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엄청나게 강화된 노동강도, 공장 문에 설치된 지하철 식 게이트와 군인 복장을 한 용역경비로 상징되는 무시무시한 현장통제, 현장의 목소리를 짓밟는 어용노조를 보라. 쌍용차 자본은 투쟁하는 노동자와 민주노조를 모두 몰아내고 자신의 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위기를 운운하며, 갈수록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고 통제를 강화하는 우리 회사 사장, 관리자와 똑같지 않은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쌍용차 노동자와 나의 처지는 무엇이 다른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철폐하고 공장으로 돌아가기 위한 쌍용차 동지들의 투쟁, 죽음의 공장을 희망의 공장으로 바꿔내기 위한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나의 투쟁,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다. 아니, 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모든 노동자의 희망을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과제이다.

자본가 국가에 맞선 노동자 계급 모두의 투쟁으로!

그동안 (정리)해고, 비정규직화, 임금삭감, 현장통제 강화, 노조탄압 등 자본의 구조조정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은 주로 자기 회사 자본에 맞서 투쟁해 왔다. 그러나 자본은 항상 국가라는 조직된 힘으로 노동자들을 착취, 탄압해 왔다. 자본은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 도입, 노동법 개악, FTA 체결 등 국가적 조치들을 통해 자신의 위기를 타개해 왔고, 노동자들

이 살고자 투쟁하면 경찰, 군대, 법, 감옥을 동원하여 탄압했다.

09년 쌍용차 사태 또한 국가에 의한 구조조정 공세와 탄압을 그대로 보여 줬다. 그리고 77일 공장점거과업 투쟁은 국가의 탄압에 정면으로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상징했다. 쌍용차 투쟁은 '해고는 살인이다'를 걸고 노동자 계급의 총과업을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으나, 노동자계급이 나아갈 투쟁의 방향을 77일 공장점거과업을 통해 웅변하였던 것이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19명의 연쇄적 타살이 진행된 현재, 국가권력에 맞선 쌍용차 투쟁은 다시금 전국 노동자들의 투쟁을 부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어찌 단결하여 투쟁하지 않을 수 있는가? 자본가 국가를 상대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나아가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강도 완화, 실업 문제 해결, 생활임금을 쟁취해 낼 전국적 투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가? 노동자의 모든 문제를 걸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싸우자는 희망텐트촌 투쟁을 외면할 수 있는가?

동지들, 쌍용차 정리해고 철폐 투쟁을 외면하지 말자! 쌍용차 정문에서 전개되고 있는 투쟁의 전선은 바로, 전국 노동자의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시간 단축 투쟁의 전선이다. 방관하지 말자!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 쌍용차 희망텐트촌 투쟁을 반(反)자본주의 투쟁의 도화선으로!

2012년은 노동자에게 대단히 중요한 해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심각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함을 통해 생존을 유지해 왔다. 전 세계적인 구조조정이 몇 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 본격화한 유럽 재정위기는 2012년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전 세계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그동안 다른 나라에 비해 위기가 심각하지 않았던 한국에도 한파가 불어닥칠 예정이다. 경제가 얼어 붙으면 정리해고를 비롯한 구조조정이 확산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쌍용차 투쟁은 2012년 다가올 구조조정에 맞설 노동자 투쟁의 서막이다. 총선을 코앞에 둔 경제위기 국면에서 계급간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쌍용차 투쟁을 방기한 채 자본가들의 복지논쟁에 편승한 총선심판론, 총선 후 총력투쟁론을 얘기하는 것은 노동자 계

급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쌍용차 77일 투쟁의 전사들이 다시금 열어젖힌 희망텐트촌 정리해고 철폐 투쟁의 전선이 바로 억눌리고 분산된 이천만 노동자 계급의 투쟁이 응집되어 분출될 도화선인 것이다. 여기가 바로 선제적인 구조조정 저지 투쟁, 반(反)자본주의 투쟁의 전선이다.

그러므로 모든 노동자는 희망텐트촌 투쟁에 함께 해야 한다. 자신의 투쟁과 희망텐트촌 투쟁이 만나게 해야 한다. 전국 모든 노동자의 투쟁이 희망텐트촌 투쟁을 계기로 하나로 만나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현대차 비정규직과 학습지 노동자들, 그리고 전국 900만 비정규직의 투쟁이 있다. 민영화를 막아낼 철도 및 공공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등록금 문제 해결, 법인화 등 대학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대학생들의 투쟁이 있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대우와 임금을 위한 청소, 식당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수많은 요구를 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 투쟁들이 하나로 모여야 한다. 하나 된 힘으로 자본가 국가를 무너뜨릴 계급적 투쟁을 만들어 내고, 노동자에게는 고통만 떠넘기는 자본주의를 열어 버릴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희망텐트촌으로 달려가자! 그곳에서 노동자의 모든 요구를 외치며, 모든 노동자가 함께 하는 투쟁을 만들자! 2012년, 쌍용차 희망텐트촌 투쟁을 계기로 노동자 해방 투쟁으로 힘차게 달려가자!

2차 포위의 날

분노하라

일시 : 2012년 1월 13일 늦은 6시
장소 : 쌍용차 평택 희망텐트촌

